

가난한 사람들이 더 가난해지고 있기 때문에 부자들이 더 부유해지고 있는가?

글쓰기

라이너 지텔만

2025-12-19

“부자들은 더 부유해지고 있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고 있다,”-이것만큼 자주 반복되었던 말도 거의 없고, 그러므로 많은 사람은 그 말을 믿는다. 많은 사람은 심지어 두 진전 사이에 관계가 있다고 믿기조차 하는데, 이것은 부자들이 더 부유해지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더 가난해진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것은 영합(零合; zero-sum) 신념이라 불린다.

약 200년 전, 자본주의가 탄생하기 전에, 세계 인구의 대략 80에서 90퍼센트가 극빈 상태에서 살았다. 자본주의의 발전 덕분에, 이 몫은 1990년까지는 대략 반감했었다. 1990년에, 세계은행은 약 23억 명이 극빈 상태에서 살았다고 추정하는데, 그 당시 세계 인구의 약 43퍼센트에 해당한다.

특히 급격한 감소는 1990년대 이후 관찰될 수 있다. 중국과 베트남 같은 나라들에서 자본주의 개혁들의 시작뿐만 아니라, 소련과 동구 국가들에서 사회주의의 붕괴는 극빈 상태에서 사는 사람들의 몫과 절대 숫자 양쪽 다에서 감소에 이르렀다. 2015년경, 그 세계적 숫자는 약 7억 명이었고, 따라서, 처음으로 세계 인구의 10퍼센트 미만이었다; 2022년에 그 백분율은 약 9퍼센트였다.

그러나 2025년 6월에, 국제 빈곤선은 세계은행에 의해 약 40퍼센트만큼 올려졌고, 이것은 빈곤율을 대략 10.5퍼센트로 증가시켰다(<https://ourworldindata.org/new-international-poverty-line-3-dollars-per-day>를 보라). 2025년에, 세계은행은 새 방법에 따라 약 8억 3,100만 명이 극빈 상태에 사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 수치는 만약에 세계은행이 그것의 계산 방법을 바꾸지 않았고 대신 빈곤선을 오직 인플레이션에 일치해서만 올렸더라면 그것이 될 것보다 50퍼센트나 더 높(!)다. 옛날 방식에 따르면, 그 수치는 5억 4,000만 명, 약 6.5퍼센트일 것이다. 그러므로 10.5퍼센트로의 최근 증가는 주로 수정된 계산 방법 때문이다-실제 빈곤은 지금까지보다 더 낮다.

그러나 부유한 사람들 수의 진전에 관해서는 어떤가? 1990년대 초기 이래로, 전 세계 억만장자 수는 급격하게 상승했다. 그 십 년의 초에, 세계적으로 적어도 10억 미국 달러의 순자산을 가진 개인들이 그저 몇백 명만 있었다. 그 당시 <<포브스>>가 발간한 명부들은 억만장자의 수가 아직도 500명 한참 아래였다는 점을 보여준다. 소련과 동유럽에서 사회주의의 붕괴, 마오주의 사회주의의 종식 그리고 중국, 베트남, 인도, 및 그 밖의 나라들에서 자본주의 개혁들 후에, 그 수는 현저하게 상승했고 2000년경 약 470명에 도달했다.

2000년대에, 그 증가는 더욱 가속했다: 그 십 년의 중엽까지는, 그 수는 이미 약 700명이었고, 2007/2008년 금융 위기 직전에는 거의 1,000명으로 상승했다. 금융 위기가 일시적인 감소를 일으켰지만, 2020년대 초기 이래 억만장자들 수는 2,000명과 거의 3,000명 사이였고, 최근에는 3,000명 표적을 넘었다. 전반적으로, 세계적 억만장자들 수는

1990년대 이래 여섯 배로 증가했다.

그러나 누구든 부의 실질 가치도 역시 변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1990년에 10억 미국 달러는, 인플레이션에 대해 조정하면, 오늘 대략 25억 미국 달러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1990년에 10억 달러 재산을 소유했던 사람은 똑같은 실질 구매력을 지니기 위해 오늘 20억을 한참 넘는 재산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억만장자들 수가 1990년 이래로 대략 여섯 배 증가했으므로, 이것은 주로 인플레이션으로 설명될 리가 없다.

결론: 사회주의의 종식과 중국, 인도, 그리고 베트남 같은 나라들에서 자본주의 개혁들의 도입 덕분에, 세계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수가 1990년대 이래로 급격하게 줄어든 반면, 억만장자들 수는 극적으로 상승했다. 마오 치하에서는, 중국 사람들의 88퍼센트가 극빈 상태에 살았다; 오늘날 그것은 1퍼센트 미만이다. 같은 기간에, 중국에서 억만장자들 수는 0에서 500명 이상으로 상승했다.

영합 신념-부자들이 부유한 것은 오직 그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서 어떤 것을 빼앗았기 때문일 뿐이라는 생각-의 신봉자들은 부유한 사람들 수가 대규모로 상승하는 동안에 가난한 사람들 수가 대규모로 떨어진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 두 진전 다의 이유는 똑같다: 자본주의로 가능하게 된 경제 성장.

이 칼럼은 2025년 12월 9일 <https://news.uk.cityam.com/story/2384810/content.html>에 게재되었다. 라이너 지텔만(Rainer Zitelmann)은 역사학자이자 사회학자이고, «국가들이 가난에서 벗어나는 방법: 베트남, 폴란드, 그리고 번영의 기원(How Nations Escape Poverty: Vietnam, Poland, and the Origins of Prosperity)» (<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215830632>)의 저자이다.

번역: 황수연(전 경성대 교수)